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 통화정책 해법 모색

태국서 G20·IMF 국제회의 참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호황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을 논의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국제회의 참석과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 총재는 13일 IMF가 주최하는 총재 대담 세션인 '거버너 토크스(Governor Talks)'에 참여한다. 글로벌 AI 산업 호황과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아시아 및 국내 통화정책 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SK, AI 시대 청년 인재 키운다… 실전형 교육 승부수

2년제 비학위 '아이젠' 신설
월 300만원·1기 50명 선발
서울대 AI연구원과 진로 설계

SK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참가자가 직접 문제를 찾고 AI로 해결하는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전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SK는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SK 아이젠(SK AIGEN)'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젠은 AI와 세대(Generation)를 합친 이름으로, 내년 3월부터 2년간 전일제(Full-Time)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개인과 기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기획하고 수행한다. 교과목을 순서대로 배운 뒤 과제에 적용하는



SK서린빌딩 외관 전경.

대신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쌓는 방식이다.

1년 차에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AI를 활용하고 동료와 협력하는 경

험을 쌓는다. 2년 차에는 자신이 세운 진로와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관련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SK는 필요한 멘토와 전문가를 연결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도 협력한다. 서울대 AI연구원은 사회학·경제학·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기관으로, 참가자들의 인문학적 통찰과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다.

SK는 참가자에게 2년간 매월 300만원의 성장지원금과 역량 교육, 개인·팀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년간 전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운영을 맡은 SK그룹 인재육성 플랫폼 마이써니(mySUNI)는 학력이나

전공보다 기술·연구·문화예술·공공·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1기 모집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 50명 인파를 선정한다. 오는 28일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

박상규 마이써니 총장은 "SK는 AI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젠'을 준비했다"며 "SK는 매년 참가자를 선발해 '아이젠'을 SK의 대표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축제 1만명 발길

명동 일대에서 나흘간 행사 개최

서울 명동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복합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개최한 '2026 ONSO FESTIVAL'에 누적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ONSO FESTIVAL은 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온드림 소사이어티의 대표 축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과 미래세대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온드림 소사이어티 안에서 강연과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명동대성당 옆마당과 가톨릭회관 앞마당까지 무대를 넓혔다.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추가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명동의 역사적 유산을 조명한 헤리티지 전시와 스토리 투어에서는 신흥무관 학교를 세운 이회영·이시영 등 6형제의 집터와 YWCA 위장결혼식 표식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명동에 남은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며 과거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되새겼다. /이승혁 기자 sh95@

LGU+, 화담숲 가을 초청 행사 '인기'

장기고객 4만6000명 응모 열기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 대상 화담숲 초청 행사에 총 4만6000명이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활용해 장기고객에게 가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총 5000명의 장기고객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4만6000명이 응모해 경쟁률 9.2대 1을 기록했다. 고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화담숲 장기고객 행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



화담숲 포토존에서 고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LG유플러스

성했다. 먼저 주요 명소 내에 스탬프 존 5곳을 운영해, 모든 스탬프를 수집한 고객에게 화담숲 기념 매그넷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포토존에는 진행요원을 배치해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노사발전재단, 택배현장 소화기 500개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택배·물류 현장에 차량용 소화기 500개를 지원하고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가을철 화재 예방이 목적이다. 재단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동남권 센터를 방문해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가 참여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차량 과부하 등 가을철 화재 위험요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전달하고, 관할 소방서와 함께 물류센터 시설물 관리와 운송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연세 기자 kys@



1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이준영 남항푸드피어 대표, 이군신 남항푸드피어 대표, 정종구 해군2함대 참모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강형덕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서해 수호 해군장병 온정

중기사랑나눔재단, 제2함대 방문 브리도·운동용품 3300만원 후원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3000만원 상당의 브리도와 300만원 어치의 운동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브리도는 군장병의 군생활을 응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남항푸드피어가 후원한 제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올해 2월에도 육군 제25사단 장병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브리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남항푸드피어는 멕시코 음식인 브리도와 또띠아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는 전문 식품기업으로 군부대 뿐만 아니라 보육원, 복지관, 노인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사랑나눔 재단에 1억원 상당을 기부하며 중소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2함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이 군생활에 작은 격려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진, 스포츠 물류 보폭 넓힌다

'서울레이스' 3년 연속 참여

한진이 '2026 서울레이스'의 공식 물류사로 3년 연속 참여하며 생활 스포츠 분야에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한진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에 참가하는 약 1만 2000여 명의 러너들을 대상으로 참가에 필요한 용품을 사전에 택배로 배송했다.

특히 대규모 참가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러닝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참가 용품을 정확한 배송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번 서울레이스 참여를 통해 한진은 스포츠 물류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을 생활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진은 그동안 스포츠 현장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물류를 수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서울마라톤의 공식 물류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생활 스포츠 참가자들의 편의와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는 방송장비와 같은 고가·특수 장비의 운송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북중미에서 열린 국제 축구대회에 필요한 방송장비 운송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아이치-나고야아시아안게임관련 방송장비를 운송하는 등 국제 스포츠대회의 원활한 중계와 운영을 뒷받쳤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수송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 경주마 특수 수송을 수행하며 스포츠 분야의 특수 물류 역량도 선보였다. /김승호 기자



롯데칠성음료, 전자 업무에 AI 활용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물류·인사·영업·재무 등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실무 활용 확대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8일 LOTTE EBC에서 '2026 AI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으며 임직원 336명이 참여해 총 198건의 AI 활용 사례를 제출했다.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매일유업이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희귀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1975년 시작한 '1일 어머니교실'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 왔다. /매일유업



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선정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가 선정하는 '2026 대한민국 최우수 서브커스터디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장영규

부음 ▲김미연씨 별세, 김성연(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씨 시모상 = 11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30분. 031-787-1500